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2011 / 01 / Vol.009



경남메세나협의회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경남메세나가 함께합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창조경영, 문화경영 지원
- 메세나 매거진 및 언론을 통해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회비나 문화예술단체 결연 지원금은 물론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지정기부금 처리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 인 :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
- 개 인 : 연간 소득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CONTENTS













004 휴(休)
복사꽃 지붕 _ 박형권

006 예술과 삶
천상병

010 2010 경남메세나대회 스케치

014 2010 경남메세나상 수상자
대상 _ 경남스틸(최충경)
공로상 _ 동서화랑(송인식)
메세나인상 _ 도난실
STX 문화예술영재상 _ 이우일(한국예술종합학교)
A&B상 _ 포스텍+진해미술협회
A&B상 _ 창원서울이비인후과+대안공간 마루

024 메세나 갤러리

032 문화송년회
일림나노텍 / SP시스템즈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진해중소기업협회 / 경남경영자총연합회 / 남해상공협의회 /
청아병원 / STX그룹 / 우수 AMS / 경남에너지 / 무림페이퍼

036 CEO in Mecenat
조성제

03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청아병원 _ 경남프리모 앙상블
신화철강 _ 극단미소
창원상남굿모닝내과 _ 경남영화협회
우수 AMS _ 경남문인협회
신텍 _ 동락문화예술연구회

044 스토리가 있는 문화
아름다운 우리노래, 가곡

046 우리회사 메세나
중앙금속 / 경원벤텍

048 클래식 쉽게 즐기기

050 예술의 희망이야기
화성 G&I _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영신원 방문공연

052 메세나 News / 신규결연팀소개

053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054 문화파발마 / 독자의 생각

GYEONGNAM MECENAT Vol.009

● **발행인** 박영빈 ● **발행일** 2011. 1. 31. ● **편집인** 손갑동
● **발행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경남메세나협의회
● www.gnmecenat.or.kr ● **Tel** 055-285-5611 ● **Fax** 055-285-5610
● **기획 · 편집**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 055-296-4995 ● **인쇄** (주)화성 **Tel** 055-295-4995

복사꽃 지붕

박 형 권

너희 동네 봄을 어디까지 왔느냐고 물었던
서울 중랑천 친구를 생각하며
두어 시간 보냈고
세상을 아무리 바로 보려 하여도 흐릿하기만 한
내 눈의 백내장을 생각하며
또 두어 시간 보냈다
이 동네의 산불 감시 오토바이들 봄볕에 골아 떨어졌는지
그 엷은 초막에서 코고는 소리가 구성지고
개울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려는 듯
방금 흐드러진 복사꽃 처녀가 맑은 종아리를 뻗는다
누구에게나 닿을 저편이 있다는 듯
그리하여 기어이 닿을 듯
연분홍 아련하다
나이가 들수록 봄 견디기가 어려워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몽환(夢幻), 내려놓고 오는데
턱! 숨이 막힌다
난분분 복사꽃이 문패 없는 내 집을 어떻게 찾았는지 복사꽃 지붕을 얹었다
연분홍 읽느라고 또 두어 시간 대문 앞에서 보냈다



박 형 권 1961년 부산 출생 / 경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 2006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 시집에 『우두커니』 가 있다 / 2010 김달진 창원문학상 수상

천상병

귀천(歸天),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글 _ 박서영



귀 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리운 주막을 꿈꾸며...

얼마 전부터 내 귓가에 시인 천상병에 관한 이야기가 맴돌기 시작했다. 안면도에 천상병 문학관이 생겼다는데 한 번 놀러가자던 이가 있더니, 또 어느 지인은 술자리에서 창원 상남동에 「귀천」이라는 주막을 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주막'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운 주막' 에 앉아 막걸리와 파전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있었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간혹 눈보라가 잠시 스쳐간 어느 날 우리는 "그래요, 봄이 오면 진달래 화전을 부쳐 팔아요." "파전은 제 담당이에요." 천상병 시인의 기묘하고도 슬픈 삶과는 상관없이 남은 사람들에게 천상병은 이미 하나의 그리운 이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삼 개월 정도를 천상병의 詩와 삶에 이런저런 이유로 붙들리면서 보냈다. 그런데 또 이건 무슨 운명인가. 천상병 시인의 「새」에 나오는 '산다는 것과/아름다운 것과/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한창인 때에/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한 마리 새' 처럼 또 한 번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다. 평소 좋아하는 김훈의 책 속에서 " '천상병' 이라는 풍경" 이라는 글을 읽게 된 것이다.

> 천상병의 마음이나 체취의 조각들에 관하여 말해야 하는 것은 나의 지극한 고통이다. 그의 표정이나 목소리, 그의 어법, 그의 걸음걸이, 그의 웃음, 그의 음색, 그의 밥 먹는 모습, 그의 조는 모습, 그의 집, 그의 음악, 그의 신발, 그의 옷, 그의 얼굴, 그의 눈꼽, 그의 입가의 침버캐, 그의 주머니 속의 천 원짜리 두 장, 그의 선글라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그의 시에 관하여 말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무구한 것들은 인간의 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엉터리로 규정되지 않는 지복(至福)을 누릴 권리가 있을 터인데, 천상병의 웃음소리와 그의 입가의 침버캐와 그의 주머니 속의 천 원짜리 두 장이 그러하다. 그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천상병은 '백치 같은' 이라고 말해야 할 무구함과, 이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열어버리는 놀라운 개방성 위의 자유인이다. 그는 그 개방성과 무구함 위에서 다만 자유롭지만 바라보는 나에게는 그 자유는 멸종위기의 자유이고 멸종위기의 슬픔이다.
>
> –김훈「 '천상병' 이라는 풍경」 중에서...

이보다 천상병을 잘 표현한 글이 또 있을까. 하나의 '풍경' 으로 남게 된 시인 천상병의 출생은 일본으로 알려져 왔지만 마산문학관 한정호 평론가의 의견은 다르다. 그는 기존의 잘못된 자료에 의존된 출생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천상병의 호적과 제적등본, 학적부등을 조사하고, 천상병의 출생지가 '창원군 진북면 대티리 799번지' 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 천상병에 대한 기록의 혼란은 그의 글들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천상병은 여러 글들에서 자신의 출생지가 일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천상병 전집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천상병은 자신의 여러 가지 기억들에 대해 혼란을 일으켰다. 아마도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룬 후 후유증과 심한 음주로 잠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 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평론가 한정호의 의견은 천상병이 '진북면 대티리 799번지' 에서 태어났고, 천상병이 네 살 때(1933년) 진동면 진동리로 이주해 살다가, 그가 열 살 되던 해(1939년)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광복을 맞아 마산에 온 천상병은 오동동에 둥지를 틀고 살았다.

의정부에서 천상병 예술제를 개최하고 안면도에 천상병 문학관이 있다지만, 창원에서 천상병의 흔적을 만난 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5월이면 산청군에서 '천상병 문학제' 를 열고, 천상병 문학상과 시낭송회 등을 개최하고, 마산 詩의 거리에 「귀천」이, 만날 고개 입구에 「새」가, 지리산 중산리에 「귀천」 시비가 세워져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근래에 천상병 시인에 대한 관심의 불씨가 통합창원에서 조금씩 싹트고 있다.

천상병의 생가터를 찾기 위해 종이 한 장 들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자료나 기억은 부호처럼 떠돌아 감각의 환상통을 앓게 한다. 뭔가 만져지는 것, 실감할 수 있는 몸이 필요했다. 때때로 무작정 길을 나서다보면 누군가 떨어뜨



리고 간 것, 잃어버린 것 등의 흔적을 줍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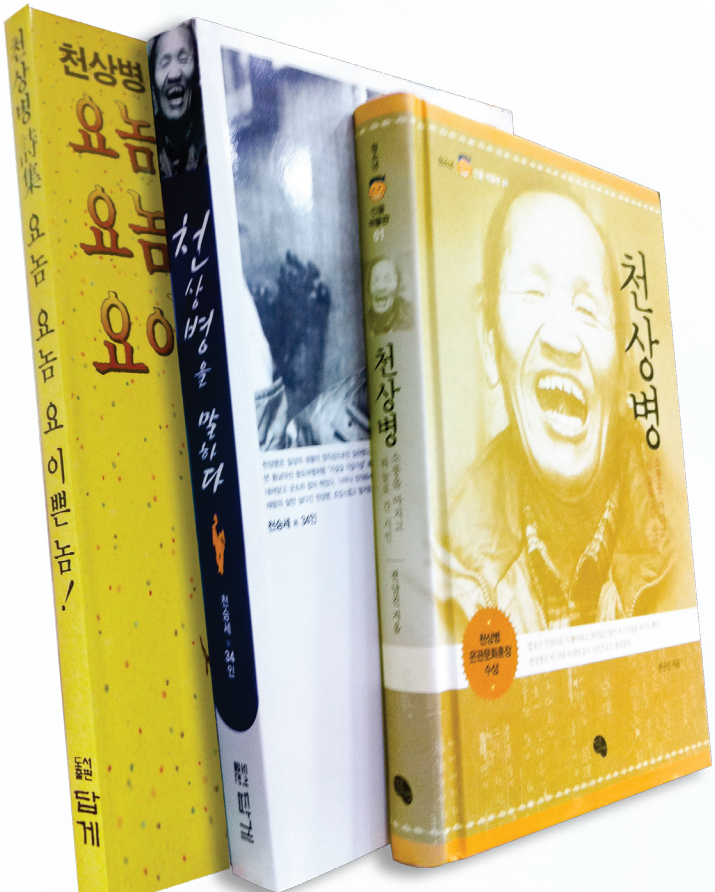
'진북면 대티리'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낯선 곳을 찾아 몇 바퀴를 돌았다. 몇 개의 마을을 통과해서 묻고 또 물어 겨우 도착한 대티리 마을은 아파트형 공장들 사이를 지나자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었다. 작고 아담하고 하루 종일 햇살이 비치는 마을이었다. 대티리 이장님의 도움으로 799번지를 찾았다. 15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은 소실되었고 겨우 한 채만이 쓰러질 듯 남아 있었다.

"천상병은 어릴 때 잠깐 살다가 진동으로 이사를 갔지. 이곳에서 줄곧 다른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 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좋았어. 누가 이 땅을 사서 그 유명한 양반을 위해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 아무 것도 없는 이 땅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곤 했어. 그 천상병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이장님은 폐허가 된 땅을 보며 물었다.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지만,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평야가 펼쳐진 마을에 천상병생가를 복원하고, 작고 아담한 기념관을 만들고 '막걸리에 파전을 파는 주막' 하나 차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대한 진북산업단지가 가까이 있으니, 건강한 사내들이 일하다 가끔 '주막'에 들러도 좋을 것이다. 머리에 수건을 한 아주머니들이 주막의 주인이 되어 세상살이 고달픈 이가 기어들면 '괜찮다!괜찮다! 속이나 풀고 가라' 고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리운 주막' 을 꿈꿔본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천상병 시인에게 있어 김춘수 시인은 문학의 스승이었다. 일본에서 돌아와 마산중학교에 편입한 천상병은 마산중학교 5학년 때 김춘수 시인의 시집 『구름과 장미』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1949년 신병(폐만간)이라는 병으로 잠시 휴학했다가 1951년 마산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 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입학하여 1954년 한 학기를 남긴 채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천상병은 김춘수의 시집 『구름과 장미』를 읽고 감동받아 자신도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이미 마산중학 5학년 때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발간된 동인지 『죽순』에 2편의 시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천상병은 1951년 『처녀지』 동인으로 참가하여 문학활동을 펼쳤다. 『처녀지』는 비록 두 차례의 발간에 그쳤지만, 전쟁기 마산문단이 낳은 소중한 성과물이다. 천상병 시인에 대한 김춘수 시인의 회고에 따르면, 어줍던 말솜씨와는 다르게 천상병의 싯귀들은 날카롭고 신선했다고 한다. 그래서 청마 유치환에게 천상병을 추천했고, 그것이 등단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등단 후 천상병은 마산·부산지역에서 초창기 문학 활동에 김춘수 시인을 비롯하여 동기였던 안장현, 송영택, 이동준, 최계락, 그 밖에도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문학인들과 교류했으며, 당시 마산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마산은 한국문단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다.

『요놈 요놈 요 이쁜 놈!』,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천상병의 이런 작품 제목들은 얼마나 간결하며 동화적인가. 그러나 그의 일생은 담배와 폭음, 수많은 기행과 일화를 문단에 남겼다. 천상병에게 '동백림 사건' 은 그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뜨린 사건이었다.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베를린 유학생 친구와의 관계를 실토하라" 며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그

때의 고문과 후유증, 심한 음주로 인한 영양실조로 인해 거리에 쓰러진 천상병은 행려병자로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다. 그 후 동료문인들은 그의 행적을 알 수 없어 사망으로 추정하고 그의 유고시집 『새』를 내기에 이른다. 이 일은 살아있는 시인의 유고시집이 발간되는 문단의 일화를 남겼다. 그의 나이 37세 때였다. 그의 나이 42세 때 소설가 김동리의 주례로 친구의 누이동생인 목순옥과 결혼한다. 천상병에게 목순옥 여사는 평생의 동반자이며 천사이며 영혼의 안식처였다.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결혼하여 천상병이라는 자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그의 삶은 이후 문학인과 부인 목순옥 여사에 의해 하나하나 재탄생하고 채워지기에 이른다. 특히, 목순옥 여사가 생전에 운영했던 인사동의 『귀천』은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운영하는 『귀천』에서 세상사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를 읊조리면서 초기시의 음울함을 벗어난, 아름다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세상살이를 '소풍'에 비유한 천상병의 기이한 행동은 시인 김규태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천상병은 지인 집을 떠돌며 막걸리값 '수금'을 했다고 한다. 요즘 돈 1000원이 정액이다. 막걸리 한잔 값이다. 잔돈이 없다 하면 큰 돈을 받고 거슬러 주기도 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을 오락가락하면서 소일했는데, 부산에서는 자갈치에서 송도까지 왕래하는 도선을 타고 막걸리 한잔에 갈매기를 벗삼아 하루 종일 배에서 내리지 않은 적도 있었다. 배를 내리고 다시 타지 않는 이상 뱃삯은 한번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죽어서도 돈 복이 없었던지 그의 장모가 허술한 오막집이다 보니 부의금 800만 원을 숨길 곳이 없어 아궁이에다 감춰 놨다. 이를 모르고 부인이 시신이 추울까봐 연탄을 새로 갈아 넣었다. 부의금 어디 뒀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아궁이 속에 넣어뒀다고 했다. 급히 연탄을 끄집어냈으나 재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간신히 재를 수습하여 한국은행에 사정하여 절반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한다.

2008년 마산에서는 '천상병 시인의 문학세계와 마산문화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그 자리에서 천상병 시인의 모교인 마산고 뒷산 솔밭에 문학관 건립과 무학산 자락에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테마 파크' 조성, '추억관 건립', 모교 마산고에 '시비 건립', '천상병과 마산'을 주제로 한 '문학자료 발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은 산 자의 몫이다. 천상병이 4살 때 살았던 진동의 집은 현재 여관이 들어서있다. 여관도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니던가. 일본의 경우 노벨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설국』의 무대이자 집필실이었던 여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소설을 집필했던 옛날의 목조 여관은 아니지만, 현대식 호텔 1층엔 70년 전 목조 여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았다고 하니, 관광객들은 소설 『설국』의 눈 덮인 풍경을 상상하고, 하얗게 변한 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며 비로소 여행길에 오른 것을 실감한다.

천상병의 삶은 불우했지만, 늘 그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 점점 순수를 잃어가는 세상에서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부분을 복원하는 일이다. 1930년 마산에서 출생하여 1993년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돌아갈 때까지 천상병 시인의 삶은 남루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행복한 시인이라고 생각했다. 천상병은 자신의 직업을 '가난'이라고 쓸 정도로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버렸고, 시집 『새』를 비롯하여 『주막』, 『저승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귀천』 등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출간하고, 방랑벽과 기이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인간내면의 순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간 우리 곁의 소중한 시인이다.

---

*천상병 시인에 관한 기본 자료는 마산문학관 학예사 한정호 박사의 논문 「천상병 시인의 마산살이와 문학-천상병의 초창기 문학과 마산의 장소성」을 참고 하였음을 밝힙니다. 자료사용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한정호 문학평론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부문 창작지원금과 2010년 요산창작기금을 받았다.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가 있다.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예술의 축전

2010 경남메세나대회



엄정행의 '해설이 있는 우리 가곡'으로 대회 막올라

'2010 경남메세나대회'가 12월 2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축제의 한마당인 경남메세나대회는 한 해 동안 경남의 메세나 활동을 되새기면서 향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약하는 자리다.
이 날 대회에 앞서 국내 최정상의 테너 엄정행 교수의 '해설이 있는 우리 가곡 여행'이 진행됐으며, 행사장 로비에는 회원사들의 다양한 메세나 활동이 전시되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축전의 장이 됐다.

이날 대회에는 임채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허기도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도내 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인 ㈜센트랄 강태룡 대표는 "지난 3년간 경남 메세나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해마다 결연팀이 늘고 문화경영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두관 도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이웃간 사랑과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연말을 맞아 기업과 예술의 만남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0 경남메세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식에서는 경남은행과 꼬니-니꼬 체임버앙상블, 경원벤텍과 장유여성합창단, 법무법인 금강과 대한전통예술보존회 경남지회, 피케이밸브㈜와 창원 큰들이 신규 결연을 맺었다.



경남스틸(주) 영예의 대상 차지, 공로상은 송인식 관장에게

이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010 경남메세나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2010 경남메세나상은 대상과 공로상, 메세나인상, Arts & Business상과 문화예술 영재상으로 나누어 졌는데, 영예의 대상은 투명경영,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메세나 활동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도적 기업인 경남스틸㈜ (대표 최충경)이 수상했다. 최충경 대표를 대신하여 경남스틸의 배인호 부사장은 "딱딱한 철강회사가 아름다운 예술을 만나 그 속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로상은 지역 최초의 상업 화랑으로서 사재 1억원을 쾌척하여 동서미술상을 제정하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동서화랑의 송인식 관장이 받았다. 송인식 관장은 "10년 뒤에 공로대상을 받겠다"고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언론과 의정 활동으로 기업의 메세나 인식 확산을 주도하며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과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 쓴 도난실 전 도의원이 메세나인상을 수상했다. 도난실 전 도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1983년 경남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문화예술인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 산고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알게 돼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끊임없이 생각해 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Arts & Business상은 결연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를 가져 온 ㈜포스텍과 진해미술협회,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과 대안공간 마루가 받았다. 포스텍 최기석 대표는 "활동에 비해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 면서 "앞으로 더 큰 활동을 하라는 격려로 받아 들인다"고 하였으며,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유화경 대표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공간인데 우리 병원을 한 번 가보고 싶은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어 준 대안공간 마루에 감사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CEO 시낭송과 플룻연주 등 다채로운 축제의 장 마련

그리고 창원 출신의 신예 바이올리니스트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이우일군이 STX 문화예술 영재상을 수상했다. 이우일군은 "사랑하는 고향에서 귀한 상을 받게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또 이 날 대회는 기업과 문화예술이 하나되어 펼친 축제의 장에 걸맞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풍물 동아리 '민예'의 신나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으며, 한빛 목장의 이종수 대표의 플룻 연주와 ㈜포스텍의 최기석 대표이사의 자작시 낭송, 문화예술 영재상을 수상한 이우일군의 바이올린 연주가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1 메세나 갤러리를 관람하는 참가자들 2 테너 엄정행 교수의 열창 3 한국항공우주산업㈜ 풍물동아리 '민예'의 신명나는 공연 4 경상남도의회 허기도 의장의 축사 5 테너 엄정행 교수의 공연 6 갤러리를 감상중인 동서화랑 송인식 관장 7 ㈜센트랄 강태룡 회장의 인사말 8, 9 STX 문화예술영재상을 수상한 이우일군의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 10 한빛목장 이종수 대표의 경쾌한 플룻연주 11 소프라노 이지영의 우아한 목소리 12 ㈜포스텍 최기석 대표이사의 멋진 자작시 낭송





















메·세·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 경남메세나 대상 수상한 경남스틸(주) 최충경 대표

"저는 메세나를 해 온 지 한 30년쯤 됐습니다. 국내에서 메세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금호 아시아나의 작고하신 박성용 회장을 모시고 한국메세나협회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 중소기업인 경남스틸이 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돼서 중소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돈을 쓴다', '지출이 됐다' 이런 비용의 개념에서 벗어나 투자를 했다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이 기업에 이득이 되는 게 많습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든지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의 정서가 안정되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경남스틸㈜과 최충경 대표의 메세나 활동은 지역에서 익히 알려져 있다. 경남오페라단, 마산관악합주단, 경남재즈오케스트라, 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 등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1인당 연간 150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고 또 본인이 직접 색소폰 연주를 할 정도로 음악을 즐긴다. 메세나의 선두주자로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CEO로서 메세나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최근 그의 메세나 행보는 어떠할까?

"통영이 낳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화가 전혁림 선생님의 판화를 구입해서 거래처에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가격이 높아도 판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술대접은 하룻밤 기분 좋고 말지만 판화는 영원히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기업 활동을 메세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메세나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아주 편하게 가깝게 접목 시키면 됩니다. 연말에 회사마다 송년회 하는데 술 먹는 송년회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연극 한 편 보는 것 이게 바로 메세나 입니다"

생활 속에서 메세나를 찾는 그가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상공회의소 1층 로비가 달라졌다. 1층 로비의 벽면을 전시 공간으로 바꾼 것. 크고 화려하지도 않은 이 전시 공간에 경남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최근 윤병석 전 창원대 미대 교수의 작품이 12점 전시되어 11점이 판매되기도 했다.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그는 기업만이 아닌 창원시 전체를 보며 메세나에 대한 조언을 한 마디 더 덧붙였다.



"창원이라는 도시가 기계공업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경제발전이나 기업도시로서 걸맞게 정신적 바탕이 되는 문화예술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창원이 세계적인 명품도시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도쿄같은 도시와 겨루려면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차제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도 '세계' 라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좀 더 단합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랍니다".



藝人同樂 50년

지역 미술계의 선구자

– 경남메세나 공로상 수상한 동서화랑 송인식 관장

영남지역의 최고의 화랑인 동서화랑의 송인식 관장에게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겼다. 지역 최초로 상업 화랑을 열었을 뿐 아니라 사재를 털어 제정한 미술상 등으로 지역 미술계에 공헌해 온 그는 숱한 상을 수상하였음에도, 2010년 연말 받은 경남메세나 공로상을 각별하게 받아들였다.

함께 청춘을 보냈던 많은 예술가들은 이미 세상을 뜨고, 그들이 남긴 활동과 작품들을 보존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그에게 보내는 후배들의 지지와 성원이 담겨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유머러스한 그는 이러한 심정을 "10년 뒤 공로대상을 받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마산 산호동 구 오동동 다리 복개천 도로변 문화빌딩 5층에 자리한 동서화랑의 한 켠에는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송인식 관장에게 수여한 공로상 상장과 트로피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藝人들과 同樂해 온 그가 만나는 문화예술계 멤버들은 이제 거의가 까마득한 후배들이다. 1923년생으로 6.25 전쟁 직후 마산에서 정착한 그가 만났던 인사들은 김춘수, 김남조, 정진업, 문 신, 조두남, 한하운 등으로 당대를 풍미한 문화예술인들이었다.

"문 신도 아프다고 할 때 내가 수술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장 문 신 선생이 1995년 귀천을 하셨음에도 어제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다. 문 신 선생이 본격적으로 명망을 얻기 전인 1983년 문신 작품 초대전을 열었으며, 1995년 이후에는 해마다 문 신 선생 추모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05년도에 이선관 시인이 돌아 가셨잖아? 우리가 나이 차이는 나도 서로 할배라고 불렀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할배야"

원로 예술인들이 차차 세상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할배'가 됐으나, 1973년 8월 영남 일대 최초의 사설 화랑을 개관하고 1990년 동서미술상 제정으로 지역의 젊은 화가들에게 활력을 심어주었던 그의 청년 정신은 여전하다.

"동서화랑을 개관했을 때 마산 인구가 30만이었는데, 40년이나 흘렀지만 현재 마산 인구가 42만밖에 안 돼. 창원쪽으로 다 갔으니까.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이지만 마산 사람으로서는 허전한 마음이야. 그런데 문화는 뿌리가 아직 마산에 있으니까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마산문예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요즘 어디를 가든지 계속 언급하고 있어"

그의 인생을 "藝人同樂 50년"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그가 보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세나 활동은 어떨까?



"젊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어.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도 경남스틸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큰 힘이 되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원이 조금 더 장기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단박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내 바람이야"

메세나, 꿈을 현실로 만든 아·름·다·운 도·전


경남메세나인상 수상한 도난실 전 경상남도의원

1980년대만 해도 신문사에 여성기자들이 드물었고, 소수인 여성기자들은 문화부나 생활가정부에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1983년 경남신문사에 입사하여 문화부 소속이 된 도난실 기자는 동료인 남자기자들처럼 '사쓰마리(사회부 경찰서 담당)'를 돌며 사회정의를 위해 뛰고 싶었으나, 정작 그가 출입해야 하는 곳은 문화예술인들의 가난한 아지트였다.

"제가 첫 출입처를 연극계로 하면서 문화부에 발이 묶이게 돼 버렸어요. 이 분들이 낮에는 잠 자고 안 나와요. 밤에 작업하러 나오는데 저도 할 수 없이 밤 시간에 이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 분들이 리딩하고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연극이나 문화예술에 애정을 갖게 된 거죠. 그 때는 의욕이 넘쳐서 연극 한 편 보기 위해 서울로 다니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여성 차별로 시작된 문화부 발령이 전화위복이 되어 문화부 전문기자로 만들어주었다고. 여기에는 당시 국장님의 혜안도 한 몫 했다. 앞으로는 한 분야의 '전문'기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독특한 게 사회부나 정치부를 출입하면 출입처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계속 바뀌게 돼요. 인사이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화부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하시니까 줄기차게 만나야 돼요. 자연스레 '문화통' 이 되는거죠"

문화전문기자로 문화부장을 거쳐 퇴직한 뒤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것의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으로 나타난 것.

"제가 문화부 데스크에 앉으면서 칼럼으로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 대해서 썼어요. 그 때만 해도 이것에 대해 특별히 귀 기울여 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나 어려움도 참으로 많았을 것이다.

"아유… 그 때만해도 도의회 내에서 메세나에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도 예산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으니까 메세나 운영비나 매칭펀드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을 경남은행장이 맡아 주어서 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시절의 변화도 작용했지만 끊임없이 요령을 울렸던 도난실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에서 메세나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도난실 전 의원은 메세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메세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들은 상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지요"

세계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다.



STX 문화예술영재상 수상한 이우일군

예술의 전당에서 해마다 열리는 제야음악회는 국내 최고의 무대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공연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 돼 버린다. 2010년 12월 31일 열린 제야음악회에는 국내 최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교수와 제자들로 구성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2010 경남메세나 STX 문화예술영재상을 수상한 이우일(23)군 역시 이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연주했다. 이 날 아들의 연주를 듣기 위해 예술의 전당을 찾은 우일군의 어머니 추수연씨를 만났다.

"사실 저는 우일이가 남자 아이라 장래를 음악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일이가 서너 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 조율을 하면서 노는 걸 보면서 절대음감을 타고 났다는 걸 알게 된거죠"

6세 때 정식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우일군은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공무원인 아버지와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를 둔 덕분에 바이올린을 켜는 틈틈이 책 읽기도 즐겨 했다고 한다. 집에 TV가 없었다고.

"부모인 우리가 우일이에게 길을 제시하기 보다는 본인이 알아서 길을 찾았어요. 서울 예원학교도 우일이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예술 영재로 한예종에 입학한 것이나 국내나 국제 콩쿠르에 나가는 것이나 우일이가 스스로 찾아서 해 나가요. 부모로서 미안할 때도 있지요"

한글을 겨우 뗀 꼬맹이가 음악 잡지를 들춰보며 김남윤 교수를 가리키며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하니 짐작할 만하다. 자신의 길을 척척 찾아가며 2008년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중앙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 2007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브람스 국제콩쿠르 최연소 3위 입상과 special prize(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정상에 이름을 올린 우일군의 영예가 부모에게는 크나큰 자랑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 영재들이 수학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몇 대에 걸친 재력가나 명문가의 자제들이 다수다. 재력가나 명문가에 비하면 공무원인 아버지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평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일군 스스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우일이가 성장하는데 부모로서 역할이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고향에서 우일이에게 큰 상을 주시니 든든한 우군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올 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는 우일군은 김남윤 교수에게 계속 사사하기 위해 동 학교의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며, 해외 유학도 고려중이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우일군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세계 최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뿐이다.

가족처럼 아끼며 배려하는

변 함 없 는
동 · 반 · 자



– Arts & business상 수상한 ㈜포스텍과 진해미협

㈜포스텍 최기석 대표이사와 진해미술협회의 김다순 회장은 마치 오누이 같다. 수상 기념 인터뷰를 진행한 2010년 연말에 ㈜포스텍을 방문한 김다순 회장의 손에는 호두과자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긴장감이 넘치는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최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달콤한 여유를 선사하고픈 소박한 배려이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회원들에게 최 대표이사님은 큰 오빠 같은 분이십니다. 어려움이나 사소한 문제라도 의논을 하면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일이 해결이 되니까요"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이런 배려가 2010 경남메세나 Arts & Business상 수상의 비결일 것이다.

"진해미협 회원들이 저를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회원들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시회에 걸린 작품 가운데 진해의 과거 풍경이 소재가 된 작품이 있었어요. 제 고향이 진해이니까 저도 그 작품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작품을 출품한 회원 분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술가들에게 후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보다 깊고 넓은 시야를 갖게 해 준다.





"미협 회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갖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부드러워지고 밝아진다고나 할까요? 이런 사고의 전환이 조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진해미협과의 교류로 ㈜포스텍이 얻게 되는 점은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일하는 곳은 수직화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밖을 나가서 미협 회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갖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부드러워지고 밝아진다고나 할까요? 이런 사고의 전환이 조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 포스텍을 조용하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Arts & Business상 수상으로 고무된 ㈜포스텍의 최기석 대표이사와 진해미협의 김다순 회장은 수상 인터뷰 자리에서 2011년 계획안을 척척 만들어 냈다. 물론 추후 진해미협 회원 전체의 동의와 포스텍과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나, 만나면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이다. 2011년 계획안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생대회 규모를 크게 늘리고, 진해미협 회원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장전 관람 등이 나왔다. 김다순 회장의 설명에 최기석 대표이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큰 오빠 같은 표정이다. 또 진해미협에서는 포스텍을 위해 가훈 써 주기 등 사원들과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 ㈜포스텍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림으로 이어진

신·뢰의 파트너

– Arts & Business상 수상한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과 대안공간 마루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필요로 해서 하는 일인데 상까지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2010년 연말 방학 시즌이라 무척 분주한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병원의 유화경 원장이 잠시 틈을 내어 2010 경남메세나 Arts & Business상 수상 인터뷰에 응했다. 유화경 원장의 겸손한 수상 소감에 대안공간 마루의 황무현 대표가 덧붙인다.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는 상인데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병원이 저희를 참 많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대안공간 마루는 회원들의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회원들이 돈을 내어 운영이 되는 곳이다 보니 운영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고, 이런 구조라 결정이 더디게 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창기에는 언제까지 그림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도 병원에서는 저희 입장을 생각해서 느긋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서로가 속한 환경이나 사고방식이 참으로 다르다. 상대적인 효율을 중시 여기는 기업과 절대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예술의 만남이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속에서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호 이해가 전제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희 병원으로서는 대안공간 마루와 결연이 무척 소중합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아픈 분들이 오시니까 참 불안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그림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병원과 대안공간 마루의 결연은 지원금을 받고 2달에 1번 병원에 그림을 전시 교체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안공간 마루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수채화 교실을 열고 있으며, 연 2회 문화 특강도 하고 있다. 유화경 원장은 주 1회 수채화를 직접 배우고 있다.

"수채화를 배우니까 좋은 게 사물을 볼 때 항상 구도와 구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점은 이제까지 제가 미처 몰랐던 점인데 배울 수 있었죠"

창원 지역의 여러 병원에 갤러리를 만드는 붐을 일으킨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병원과 대안공간 마루는 최근 들어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정태기 전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병원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짓기 사업에 대안공간 마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네팔 학교 짓기 사업을 위한 전시회에 대안공간 마루는 회원들의 그림 33점을 출품해서 2천4백만원의 수익금을 기부했다.

"대안공간 마루는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병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섭니다. 도움이 되는 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저희 운영위원들이 창원서울이비인후과 홍보요원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병원과 대안공간 마루의 좋은 파트너십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으로도 전적인 상호 신뢰다.

"저희 병원으로서는 대안공간 마루와 결연이 무척 소중합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아픈 분들이 오시니까
참 불안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그림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요."



Mecenat gallery

메 / 세 / 나 / 갤 / 러 / 리

❶ 지난 10월 경남스틸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개최한 '고객사 초청의 밤' 에서 결연단체인 경남재즈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장면
❷ '경남신문 사원가족 송년의 밤' 에 메세나 결연단체인 경남아방가르드앙상블이 클래식 연주회를 열어 우아한 송년회로 꾸며주었다.
❸ 경남은행 고객초청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 매년 결연단체인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에 고객들을 초청하여 문화적 감성을 선사한다.
❹ 지난 7월 고성군 하이면에서 열린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경남은행의 후원을 받으며 전통 예술을 보존하고, 지역민에게 신명과 감동을 선사한다.
❺ 어린이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1996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남에너지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❻ 나전칠기의 40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통영옻칠미술관은 경남자동차판매와의 결연으로 안정적인 작품 창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봄 '칠예의 문' 제막식
❼ 경한코리아와 오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솟대패사물놀이예술단이 지난 10월 31일 정기공연을 열어 웅장하고 신명나는 놀이판을 펼쳐보였다. 경한코리아 이상연 대표이사와 공연 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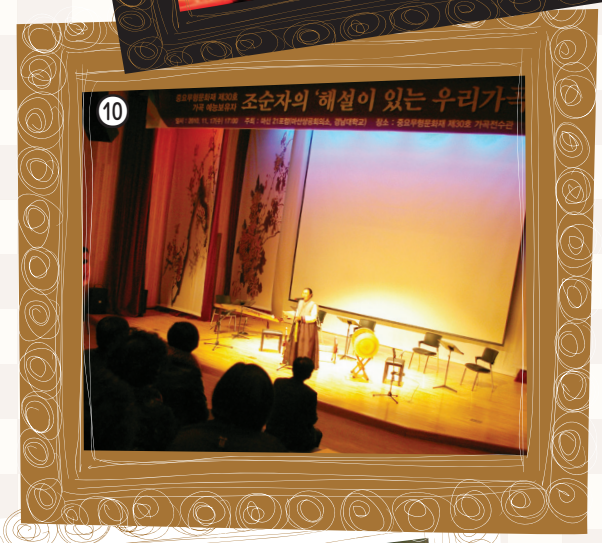




















❽ 경원벤텍은 시무식을 대신해 공경렬 대표이사의 딸인 공재민씨가 공연한 '오색의 향기' 를 직원들과 함께 관람함으로써 뜻깊은 한해를 시작하였다.
❾ 고구려와 결연을 맺은 경남국악관현악단 休는 지난 10월 9일 성산아트홀 대극장 에서 '소리, 꿈길을 가다' 기획공연을 열었다.
❿ 11월 17일 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 고려철강 대표이사)는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즐기고자 가곡전수관에서 상의의원 및 기업체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순자 관장의 '해설이 있는 우리 가곡' 을 감상.
⓫ 진주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무림페이퍼의 가을 클래식음악회. 300여명의 직원가족이 참석해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⓬ 농협은 5월에 '정오의 예술무대' 라는 제목으로 창원대학교와 함께 창원시청 후정에서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⓭ ㈜무학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장 벽에 서양화가 박두리 화백에게 의뢰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⓮ 지난 5월 열린 마산 국제 '춤' 축제에서 공연 후 문윤수 원장과 결연단체 경남발레단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Mecenat gallery

메 / 세 / 나 / 갤 / 러 /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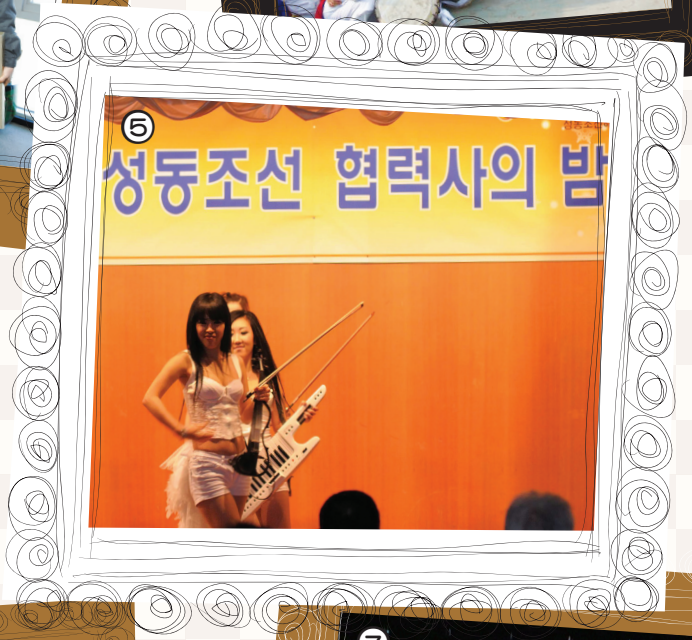
❶ 대한전통예술보존회 경남지회는 제13회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를 법무법인금강의 후원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국악인들이 모여 재능을 겨루었다.
❷ 신텍의 직원들은 자신의 가훈을 한편의 서예작품으로 탄생시킨 동락문화연구회 덕분에 가훈의 의미가 더 깊어졌다며 고마워했다.
❸ 산골농장과 결연을 맺고 있는 산청민속보존회는 전통 예술의 맥을 이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공연장에서 산골농장 이상호 대표와 함께.
❹ 자녀들과 경남독립영화제에 참석하여 경남영화협회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이창열 원장.
❺ 협력사 직원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성동조선 협력사의 밤' 행사를 개최. 신나는 전자현악단 공연이 곁들여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송년회가 되었다.
❻ 북성산업과 2008년부터 결연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풍류춤연구소는 회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민족춤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❼ 산호수출포장과 결연한 경상도소리보존회의 '김옥숙 얼쑤 아리랑, 삶의 소리' 정기공연.





























❽ 신대양과 결연을 맺고 있는 진해 소재의 국악단체 '예술단 樂' 은 지난 여름 '相生' 을 주제로 2010년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국악의 흥과 멋을 관객과 나누었다.

❾ 속편한내과와 결연을 맺고 있는 창원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1월 10일 '소리여! 천년의 소리여!' 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❿ 김해에 위치한 에이스브이는 김해농악보존회와 결연을 맺고 지원하고 있다. 김해농악보존회는 김해지역에 전래되어 오는 농악을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며 활발히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⓫ 신화철강㈜정현숙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함께 결연단체 '극단 미소' 의 정기공연장을 찾아 '영종도 38km 남았다' 를 관람했다.

⓬ 삼원테크를 찾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공연을 펼친 난리굿패 어처구니. 한 해 동안 회사의 무사와 사원들의 소원성취를 빌며 모두가 한 데 어울려 흥겨워하고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었던 시간.

⓭ 장생도라지와 결연을 맺은 이상근 기념사업회는 20세기 한국 현대음악을 개척한 고 이상근 선생의 음악세계를 기리고 한국음악의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이상근 국제음악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⓮ 5회째인 인산가곡제. 인산죽염촌은 함양 상림숲에서 매년 초가을 최정상급 성악가들을 초대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가곡제를 개최한다. 연주는 결연단체인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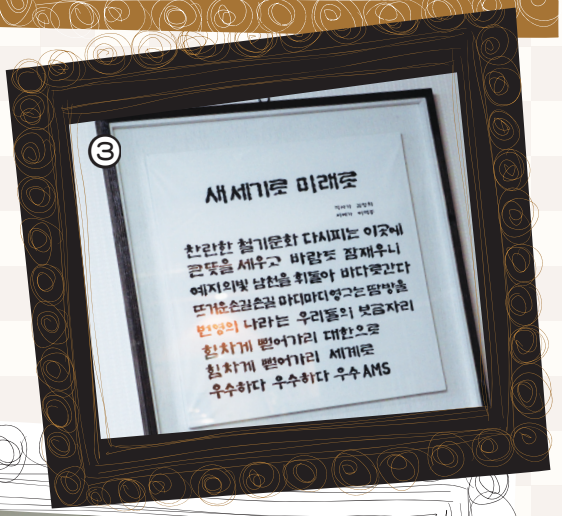
Mecenat gallery

메 / 세 / 나 / 갤 / 러 / 리

❶ 인산가의 인산 김일훈 선생 탄신 101주년 기념행사에서 예술단 '락' 의 신명나는 공연.
❷ 디자인회사 정문애드테크는 이번에 경남불교미술인협회와 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예술지원에 나섰다. 경남불교미술인협회는 산사를 찾아가는 미술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❸ 경남문인협회 김명희 작가가 작사한 우수AMS의 사가 '새세기로 미래로'
❹ 환경사진작가로 활발히 활동중인 원광종합건설㈜조성제 대표이사가 지난 가을 '아름다운 동행전'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모습.
❺ 일림나노텍은 11월 26일 점심시간에 사내 식당에서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문화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공연을 한 경남관악합주단은 경쾌한 곡으로 일림 가족들의 흥을 돋우며 즐거운 송년회를 선사해주었다.
❻ 중앙금속과 결연을 맺은 한국문자문명연구회는 '2010문자문명전' 에서 문자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였다.
❼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은 '대안공간 마루' 와 결연을 맺고 원원의 상생 결연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병원 내에 미술작품들을 전시하여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등 예술을 활용한 문화경영에 적극적이다.























❽ 창원상공회의소는 1층 로비를 '챔버갤러리' 로 꾸며 우리지역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10월에는 제5회 초대전으로 윤병석 화백의 초대 전시회가 열렸다.
❾ 청아병원은 경남프리모 앙상블과 결연을 맺고 매년 연말마다 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가족 및 지역민들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열고 있다.
❿ 포스코특수강㈜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퇴임식에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 하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다.
⓫ 포스텍과 결연을 맺고 있는 진해미협에서 최기석 대표이사와 직원가족들에게 멋진 가훈을 써서 선물 하였다.
⓬ 피케이밸브㈜와 결연한 창원 큰들은 2010 정기공연에서 시민이 참여한 '130인 사물놀이' 를 시원스레 펼쳐 보였다.
⓭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공연 후 현대단조 마평수 대표이사와 기념촬영.
⓮ 사내 예술동아리가 4개나 될 정도로 직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는 KAI. 사진은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초청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풍물동아리 '민예'







Mecenat gallery

메 / 세 / 나 / 갤 / 러 / 리

❶ ㈜현대기업은 경남관악합주단과 결연을 맺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경남관악합주단의 정기공연 모습.
❷ 한국자연환경㈜와 결연한 다볕문화가 지난 10월 개최한 제14회 경남어린이연극 페스티벌. 전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연극제로 "어린이연극을 보려면 함양으로 가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함양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연극·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❸ ㈜화영과 결연한 김금희무용단은 지난 8월 밀양 영남루에서 상설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❹ 지난 9월 화인테크놀리지 창립 12주년 기념 한마음 가족음악회에서 서영옥 대표이사가 플룻연주를 하고 있다.
❺ 홍기종합건설의 지원에 보답하고자 김해민속예술보존회에서 지난 5월 회사를 찾아가 무사고 기원을 위한 우리가족 한마당 공연을 신명나게 펼쳤다.
❻ 지난 5월 ONE는 공장확장 이전식을 가지면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김해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가 힘있고 밝은 음악들을 연주하며 축하 분위기를 북돋았다.





















❼ STX엔진은 미술작품 대여사업에 참여, 'STX종합기술원' 에 미술작품을 전시하여 문화공간으로 꾸몄다.
❽ 작년 연말 마산영신원을 찾아가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이 찾아가는 연주회를 열고, 화성G&I㈜ 김원철 대표이사가 선물도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❾ 경남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한 STX 종합기술원 개원 기념 사내콘서트
❿ the 큰병원은 오감(五感)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원미술협회와 함께 8층에 숲 갤러리 오픈.
⓫ STX조선해양과 결연한 창원소년소녀합창단 안젤루스는 STX조선해양의 초청으로 조선소를 견학하며 배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⓬ 전문공연기획사 PS엔터테인먼트와 결연을 맺고 오랫동안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극단 이루마는 최근 포복절도 코미디연극 '오동추야 달이 밝아'를 무대에 올렸다.







의미있는 마무리, 문화송년회

연극이나 음악회 등을 직장 동료,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송년회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송년회 하면 흔히 '술자리'를 떠올리지만 최근 들어 문화예술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지난 연말 (주)닥스클럽이 국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술마시는 송년회'가 제일 가기 싫은 술자리 1위로 꼽히기도 했다고 하니 송년회 문화가 바뀌는 것도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일림나노텍 2 SP시스템즈

2010년 연말에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문화송년회를 개최한 기업은 20여개로, 11월 26일 일림나노텍에서 문화송년회의 첫 신호탄이 올랐다. 일림나노텍은 구내식당에서 임직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관악합주단의 연주를 감상 한 뒤 조촐한 송년회를 가졌다. 일림나노텍의 문화송년회는 2010년만이 아니라 2009년에도 진행된 바 있다. 사원들의 호평에 힘입어 또 실시된 것이다.

양산에 자리한 SP 시스템즈의 임직원과 가족들 50여명은 12월 14일 2010년 송년회를 부산 농심호텔 사파이어홀에서 갖고 경남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음악가들의 모임인 '재즈포인트'를 초청하여 재즈음악을 감상했다. SP 시스템즈의 한보람씨는 "보통 송년회라고 하면 1차 회식, 2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데, 직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초청해 귀에 익은 재즈 음악을 들으며 차분하게 보낼 수 있어서 의미 깊은 시간이 됐다"고 했다.

2010년에는 기업만이 아니라 경영인들의 모임에서도 문화송년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12월 2일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은 풀만호텔 2층 오리옥스룸에서 경남수출기업 네트워크 발표회를 가진 뒤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감상했다. 7일에는 진해중소기업협회(회장 박종춘 신대양㈜ 대표이사)가 추진한 문화송년회에 진해 지역의 중소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하여, 예술단 '락'의 공연을 관람했다. 신대양㈜와 예술단 '락'은 메세나를 통해 결연을 맺고 상호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6일 경남경영자총연합회는 창원호텔에서 문화송년회를 개최하여 트루베르첼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했다. 남해상공협의회(회장 송한영 정남종합건설㈜ 대표이사)는 12월 21일 송년의 밤을 마련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송년의 밤은 '다물'의 모듬북 공연과 기관 단체장들의 색소폰 연주로 진행됐다.

송년회를 '문화'에 '나눔'을 더하여 개최한 경우도 있다. 2010년도 14회째를 맞은 마산청아병원의 문화송년회는 경남프리모앙상블의 공연에 환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초청하여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STX그룹은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공연된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임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하는 문화송년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부터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특색있는 문화송년회를 진행해 온 STX그룹은 근무 특성상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직원들과의 화합의 장이 되어 더



1



2















욱 의미있는 송년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창원에 자리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우수AMS는 12월 29일 종무식에 전자현악단 비키니시티를 초청하여 사내 공연을 가졌으며, 경남에너지는 30일 종무식에 경남국악관현악단 休의 공연으로 새해 도약을 다졌다. 서부 경남지역에서 메세나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 진주의 무림페이퍼 역시 12월 31일 종무식에 결연을 맺고 있는 진주챔버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를 즐기는 문화송년회를 개최했다.



1 STX그룹
2 경남에너지
3 진해중소기업협회
4 경남경영자총연합회
5 청아병원
6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7 우수AMS
8 남해상공협의회
9 무림페이퍼

세계적인 장애인 예·술·가의 탄생을 기대하며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금 쾌척한 원광종합건설㈜의 조성제 대표이사

정반합은 새로움을 창조한다. 근대 이래 건설은 환경을 소외시켜 왔다. 또 최대 다수의 편리함을 위해 소수의 불편을 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건설이나 건축은 환경과 화해하고, 소수를 위한 최상의 배려를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원광종합건설의 조성제 사장 역시 건설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서
예술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진전의 수익금을 경남장애인재활협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조성제 사장은 2010년 11월 '장애인 문화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사진전 '아름다운 동행–White Space전'을 개최하여 사진전의 수익금 5천만원을 경남장애인재활협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의 액수도 상당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이라는 기부금의 목적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2008년 경남메세나인상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경남메세나협의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원광종합건설의 조성제 사장을 만났다.

"주변에 예술적 재능은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서 예술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진전의 수익금을 경남장애인재활협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제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취지로 경남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흔히 문화예술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고행을 각오한 길이라고 한다. 이런 만큼 문화예술을 장애인이 한다는 것은 두 배 세 배 힘든 일이다. 사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수용자도 되기 어려운 현실인데 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이요 이상인 것이다. 그러나 조성제 사장 같은 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겸 사진작가로 세계적인 예술인인 앨리스 래퍼만 하더라도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

조성제 대표이사의 이번 기부가 특별한 것은 원광종합건설의 수익금이 아니라 사진전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조 회장은 청년 시절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진을 건설회사를 경영하면서 한참동안 잊고 지내야 했지만, 2000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그동안 오염과 폐수로 버려진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사진기를 다시 들었다고 한다.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한 봉암 갯벌의 물이 맑아지고 철새들이 날아오고 게 같은 생물체들이 꼼지락 거리는 게 신기해서 관심이 가고 그 곳에 가고 싶어졌어요. 한 두 번 가기 시작하니까 그 곳의 생물체들의 변화가 느껴지고 그 곳의 물, 풀, 새들에게 정이 들었어요. 날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술가라면 당연히 이 변화를 포착하고 싶을 것이다. 조성제 대표이사는 새벽 잠을 설치며 봉암갯벌에 나가 1만5천여장의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서 250장을 골라 2007년 '습(濕)'이라는 주제로 사진전과 책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작업은 지역의 환경단체와 문화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 기념 특별 사진전에 초대작가로 선정됐다. 환경과 건설은 부조화를 넘어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환경을 망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건설업이 부상됐는데 건설회사의 CEO가 환경사진작가로 활동을 한다는 점도 상당히 이채롭다.

"그런걸 편견이라고 하나요? 아니 과거에는 건설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점도 있지만 최근들어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에코 건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건축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하고요. 장애인에게 편리한 곳은 모두에게 편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김해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 회사가 지었습니다"

상식이나 주어진 현실을 뛰어 넘으려는 조 사장의 노력은 'White Space' 전시회에서도 발휘됐다. White Space전의 소재는 주남저수지이다. 주남저수지하면 철새를 떠 올리지만 조성제 사장의 사진에는 철새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

"철새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주남저수지 주변의 경관, 산이나 물, 풀과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새가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주남저수지 전체를 담았고요. 또 주제를 사진에 채워 넣으려 하기보다는 빈 곳, 여백을 생각했습니다"

조성제 사장은 사물을 보는 다른 방식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놓치기 쉬운 또는 외면하기 쉬운 장애인 문화예술기금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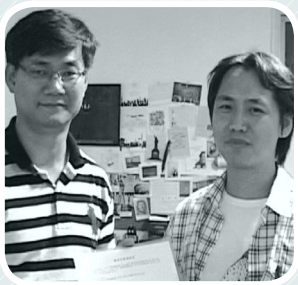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기업이 예술을 후원하고 예술이 기업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동행' 이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원사들 사이에서
탄탄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조그만 배려와 작은 관심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시너지 효과는
이제 경남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게는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함께 해 만들어지는
21세기 문화경쟁력은 그들이 후원하는 물질적 가치의 볼륨을
훨씬 뛰어넘는 기업가치 향상의 필수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남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만들어 내는 그 생생한
'아름다운 동행' 의 현장을 함께 들여다 보도록 하자.

















메세나의 온기, 거래업체도 훈훈하게

청아의료재단과 경남프리모앙상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 협력업체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메세나가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아의료재단(이사장 최재영)은 1998년 경남프리모앙상블 창단 때부터 결연을 맺고 상호 지원을 해 왔는데, 2010년 연말에는 새로운 메세나 활동을 선보이게 됐다. 청아의료재단과 경남프리모앙상블은 12월 10일 60여개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사보이호텔에서 디너를 겸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행사는 경남프리모앙상블이 해마다 연말이면 진행하는 청아병원음악회 외 더 적극적으로 청아의료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성산아트홀 대관 문제로 연 1회 정기연주회 공연이 어려워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타개책이 되기도 했다.

청아의료재단 임직원, 60여개의 거래업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공연은 각 국의 민요, 뮤지컬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는데, 청아병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신도식품의 신갑도 대표는 "가끔씩 음악회 공연을 가도 남성중창단의 공연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아주 독특하고 인상적이었다" 고 연주회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또 신 대표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다" 면서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등하게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뜻 깊은 자리였다" 고도 했다.

청아병원의 이지영 계장은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병원측에서 편안한 공연과 식사가 어우러진 자리이며 메세나의 취지를 설명하자 예상외로 많이 참석을 해주었다" 고 하면서 "병원이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배려와 감사의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취지가 통한 것 같다" 고 전했다.

청아의료재단은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 이전부터 경남프리모앙상블과 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친근한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인형극 공연, 음악회 개최 등을 진행하였으며 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마산시 자원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극으로 새로운 소통의 길을 찾은

신화철강과 극단미소

2010년 연말 창원 신화철강 60여명의 임직원들은 극단미소의 "낙원의 길목에서" 를 단체관람하면서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했다. 아담한 소극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슬픈 코미디에 한껏 몰입됐던 신화철강 임직원들은 연극이 끝난 뒤 가진 송년회 겸 뒤풀이에서도 연극의 내용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날 연극의 내용은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는 루저들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놓고 벌이는 이야기였다. 한 직원이 애잔한 표정으로 "인생 부질없다. 욕심내지 말자" 는 두 문장으로 압축하여 관람평을 말하자 모두들 고개를 주억거리면서, 돈을 앞에 두고 배신과 죽임을 택한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해 즉석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날 송년회에 공연을 마친 극단 미소의 연극배우와 연출진 및 단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김종찬 연극배우의 사회로 신화철강의 직원들은 즉석에서 배우가 됐다. 출연했던 연극배우들이 한 장면을 시연해 보이면 지목된 신화철강 직원들이 '연기 따라하기' 를 해야 했던 것이다. 지목을 당한 직원들은 쑥스러워 하면서도 열연(?)을 펼쳤다. 정현숙 대표도 지목을 당했는데, 1공장의 직원에게 넘기고, 1공장의 직원은 2공장의 직원을 지목하는 '수건돌리기' 로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 날 직원들과 함께 연극을 본 신화철강의 정현숙 대표는 "우리가 회식을 한다든가 모임을 하면, 화제가 주로 회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여전히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긴장을 풀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연극을 함께 보고 나서 자리를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연극이 그 날의 주제가 되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집니다. 또 연극 주제에 대해 각자 다른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요"

창원 팔용동에 자리한 철강재 유통회사인 신화철강(주) 정현숙 대표는 2010년부터 극단 미소와 트루베르챔버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는 큰 뜻에서 비롯된 것이면서도, 가족같은 직원들의 삶이 연극이나 음악을 보고 들으면서 보다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신화철강(주)의 지원을 받는 극단 미소는 새로운 작품을 올릴 때 마다 신화철강의 직원들을 초청하는데, 이러한 연극단체관람이 임직원들에게 '소통' 이라는 또 다른 효과까지 가져와서, 정 대표는 대만족이라고 한다. 직원들 역시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몇 차례의 연극 관람 이후 가족까지 초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화철강은 201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가족같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향유하는데 지속적인 행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영화같은 '동행'

창원상남굿모닝내과병원과 경남영화협회

경남영화협회는 2010년 전국 최초로 개인 회원들에게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여 영화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회원 4명에게 돌아간 지원비가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한 제작비 전액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의 영화인들의 처지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금이었다.

경남영화협회가 개인 회원에게 제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던 데는 메세나 결연을 맺은 창원상남굿모닝내과병원(원장 이창열)의 전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이창열 원장은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특별한 이해나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든다는 꿈같은 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지역의 영화인들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면서 "경남영화협회와 결연을 맺고 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같은 건물에 있는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의 정태기 원장과 경남메세나협의회 덕분이다" 고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남영화협회의 정홍연 대표는 "창원 상남굿모닝내과병원의 지원 덕분에 2010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메가박스 창원에서 진행된 제4회 경남독립영화제에 지역의 영화인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할 수 있게 됐다" 면서 고마움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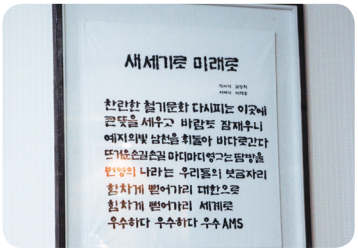
경남영화협회는 자신들의 능력, 즉 영화로 창원상남굿모닝내과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광고를 제작하여 독립영화제때 광고 상영을 하였는데, 이 광고에 이창열 원장은 배우(?)로 직접 출연했다. 출연 소감에 대해 이창열 원장은 고개를 절래 흔들었다. "말도 마십시오. 20초 나왔는데 4시간이나 찍었어요. 영화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화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경남영화협회에서는 병원 광고를 찍기 위해 3번의 암행(?) 취재를 통해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병원' 과 '최신시설을 갖춘 병원' 으로 주제를 정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자진해서 모델이 되어 줄 정도로 친절하고 편안한 병원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촬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NG다. 광고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창열 원장을 비롯한 창원상남굿모닝내과병원의 직원들 50여명 모두가 파이팅을 외치는 대목에서 6번을 되풀이해서 찍었지만 실수마저도 신기해하면서 즐기는 시간이었다.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이창열 원장은 "젊은 영화인들이 만드는 독립 영화가 거칠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섬세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면서 지역의 영화인들이 제작하는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문학단체 최초로 메세나 결연한

우수AMS와 경남문인협회

춤, 음악, 연극, 미술 등 문화예술의 근원이 되는 문학은 대체로 문자로 표현되기에 비주얼이 대세인 요즘, 간과되기 일쑤이다. 기업들의 메세나 역시 눈에 보이는 문화예술 장르에 집중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창원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수 AMS(회장 전종인)는 2010년 9월 경남문인협회와 결연을 맺고 후원을 약속했다.

경남 문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쾌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세나의 취지에 걸맞게 전종인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경남문인협회 정기총회 송년문학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 를 멋지게 낭송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우수 AMS와 경남문인협회는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한 결연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우수 AMS의 사가인 "새 세기로 미래로" 를 경남문인협회의 김명희 작가가 작사한 것이다. 2007년 창원상공회의소와 창원예총에서 주최한 행사로 선정된 기업의 사가를 예총의 회원들이 작곡·작사하여 선사하였는데, 이 때 우수AMS도 사가를 만들게 됐다. 직원들에게는 사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



전성옥 상무는 "메세나 결연이후 경남문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시집, 수필집 등 여러 책을 직접 챙겨주셔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면서 "남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문학을 가깝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문협과 결연으로 책 읽는 직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경남문인협회에서는 우수 AMS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읽는' 문학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문학을 계획하며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다. 경남문인협회의 김복근 회장은 "흔히 문학은 공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낭송 퍼포먼스, 시극이라든지 수필과 춤의 결합, 시와 음악의 결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면서 "우수 AMS와 의논하여 사내에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볼 기획 중이다" 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최근 들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문인들이 서울로 옮겨 가 버리는 경향이 생겨나 다소 위축된 분위기였는데 우수 AMS의 지원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과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됐다" 면서 전종인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와 보답으로 굳게 이어진

신텍과 동락문화예술연구회

최근 들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예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작 활동과 함께 글씨지도, 미술치료사업 등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모임인 '동락문화예술연구회' 는 2010년 12월 22일 창원 캔버라호텔 17층 식당에서 송년회를 마련하면서 메세나 결연을 맺은 (주)신텍의 임직원들을 초청했다. 신텍의 조용수 대표이사 내외분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였고, 특히 이창희 진주 시장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날 조용수 대표이사는 "발전소용 보일러를 제작하는 업체로 무겁고 딱딱한 편인데,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서로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면서 "메세나로 맺은 좋은 '인연' 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 고 인사했다.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일하면서 '동락문화예술연구회' 와 친분을 쌓은 이창희 진주시장은 "신텍과 동락문화예술연구회의 메세나 결연은 참으로 소중하다" 면서 "경남전역에서 메세나가 활성화되어 지역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고 축하했다.

2010년 한 해 창원시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서예지도, 창원 반송성당에서 경로인 참글씨지도, 창원 범숙학교에서 사회적응훈련 미술치료사업 등을 진행했던 '동락문화예술연구회' 회원들은 송년회 자리에서 (주)신텍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조용수 대표이사가 평소 자주하는 말씀들을 양초 300개에 새겨 전달했다.

또 '동락문화예술연구회' 는 최근 신텍 직원들과 함께하는 판화교실을 진행하여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이 판화교실에는 신텍의 젊은 직원들 8명과 창작의 낯섦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락문화예술연구회 회원의 지인들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해 주었다. 동락문화예술연구회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품을 완성한 신텍 직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스스로 놀라워했다. 비구상으로 스케치를 해서 판화작업을 한 신텍의 조아라 대리는 "판화교실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것 같다" 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신텍 직원들의 판화 작품은 2월 22일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는 동락문화예술연구회와 신텍의 공동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동락문화예술연구회의 박금숙 회장은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은 만큼 판화교실을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텍을 위해 4월말로 예정된 신텍 사옥 완공 때 직원들의 가훈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고 했다. 2010년 동락문화예술연구회는 신텍 직원들의 가훈을 써 주기를 진행한 바 있는데, 신축 사옥 건립 기념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훈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신텍과 동락문화예술연구회의 메세나 결연은 촛불처럼 은은하게 서로를 밝혀주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 노래, 가곡 [歌曲]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전수관 사무국장 **신 용 호**

천년의 시간을 어어온 우리 노래 '가곡'이 있다.

'태고로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그 뜻을 말로 표현하여 시(詩를) 지었고, 시를 길게 소리내어 노래하고, 길게 노래하는 것으로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발을 굴러 용모를 움직여 춤을 추었다.' 고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전한다. 즉, 뜻을 말로 표현한 것이 시(詩)고 그 뜻을 길게 소리내 말하는 것이 노래라는 말이다. [詩言志 歌永言]



시를 길게 소리내 말하는 노래. 영언(永言).

우리 노래 '가곡' 은 5장 형식으로 작곡된 잘 짜여진 틀에 시조시(時調詩)를 그 노랫말로 얹어 관현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 전통 성악곡으로, 구한말 홍난파 등에 의해 소개되고 창작된 '선구자' 나 '그리운 금강산' 등의 서양식 가곡과는 다른 우리 노래이다. 특히,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들어보았던 '청구영언' , '해동가요' , '가곡원류' 라는 책은 바로 이 '가곡' 의 노랫말을 담은 가집이다. 가곡은 18세기에 이르러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당시 지배계층은 물론이고 풍류를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단(歌壇)을 만들어 가곡을 연주하고 즐겼다. 이후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노래 '가곡' 은 서양식 가곡에 비해 고리타분한 옛 것으로 취급받으며 점점 그 존재감을 잃어가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육성 중이다.

이러한 '가곡' 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 본연의 의미를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분이 영송당 조순자 선생(가곡예능보유자/가곡전수관장)이시다. 선생의 그 의지가 발현되어 2006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중요무형문화재 가곡전수관이 개인종목으로는 유일무이하게 개관되었고, 지난해 2010년 9월 가곡전용연주장 영송헌의 개관으로 명실상부한 '가곡' 의 메카로 우뚝섰다.

그런 그의 노력의 결과일까? 2010년 11월 캐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가곡' 이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그 문화적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오랜시간을 거슬러 전승되고 있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가곡전수관은 이렇게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인 '가곡' 을 전승보전하는 기관이다.

가곡전수관에서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한번씩 우리 문화를 즐기고 음악을 감상하고 참여한 연주자 관객들간의 소통을 나누는 풍류방이 열린다. 우리지역 문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그리 많은 분들이 찾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풍류방에서 풍류를 나누고 소통해 본 분들은 꼭 다시 찾아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게다가 알음알음으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전수관을 찾아 공연을 즐기다가 직접 뭔가를 배우고자 '영송헌 아카데미' 강좌를 등록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노래, 거문고, 가야금, 대금, 장구, 피리, 해금 등 우리 악기 한가지씩 배우는 알짜 관객도 해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이러한 영송당 조순자선생의 노력이 전해져서일까? 가곡전수관에서 주최한 여러 공연을 경험한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아름다운 우리 노래 '가곡' 의 전승보전과 보급선양을 위해 설립된 가곡전수관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시고자 후원을 해주시는 감사한 일이 지난해 참 많았다. 경남에너지, 고려철강, 대우백화점 등의 지역기업에서 가곡전수관 공연에 스폰서로 참여해주셨으며 특히 고려철강(대표 한철수)은 가곡전수관과 메세나 결연을 맺어 한 가족이 되었다.

그 인연으로 많은 지역인사들을 초청한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만들어 문화향수권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10국제습지포럼 창원회의 기념 전통음악공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마음 국악공연, 마산상공회의소 주관 전통음악세미나, 마산고 동창회 초청 송년음악회 등이 그 공연이다. 특히, 2010국제습지포럼 창원회의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단한 관심이 생겼으며 가곡에도 상당한 관심과 매력을 느껴 너무 고맙다' 는 말을 전하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표현했으며, 마산고 동창회 초청 송년음악회는 송년회의 새로운 방식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동창회 등 친목모임에서도 문화송년회, 문화신년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가곡전수관의 소식은 http://www.igagok.org(홈페이지), http://gagok.tistory.com(블로그), http://www.facebook.com/igagok(페이스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J O O N G A N G M E T A L

"메세나가 머꼬?"

중앙금속

박 정 연 대리

제가 메세나를 알게 된 계기는 제가 몸담고 있는 철강유통업체인 중앙금속이 한국문자문명연구회와 결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9년 처음 결연을 맺었을 때만 해도 "참 좋은 제도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2010년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주최한 통영예술기행에 아이들과 조카들까지 함께 참가하면서 메세나를 아주 가깝게 느끼게 됐어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과 나들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통영기행은 저희 가족들에게 알차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통영기행에 참가했던 직원들 역시 메세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됐고요. 이 기행 이후로 "메세나가 머꼬?" 하는 질문이 폭주했답니다.

우리 중앙금속과 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문자문명연구회에서는 멋있는 글씨체로 좋은 문구들을 적어서 액자에 넣어 보내 주십니다. 사장님은 생일을 맞은 직원이나 축하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한국문자문명연구회에서 보내온 정성이 가득 담긴 액자를 직원들에게 선사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사장님이 직접 직원들에게 공연 티켓을 지급해주셔서 직원들끼리 어울려 공연감상을 하는 등 나름 활발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메세나 덕분에 조금이나마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메세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 Y U N G W O N V E N T E C H

"우리 회사 메세나는 이제 시작이다"

경원벤텍

김 상 금 부장

우리 민족은 흥이 많아 가무에 능했다는 얘기가 역사책에도 나오던데, 저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라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끼' 와 '흥' 을 살려 여성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김해의 장유는 신도시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단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고 불평하기 보다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2009년 노래를 좋아하는 장유지역의 여성들과 합창단을 결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해서 2010년에는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쁜데 저희 회사에서 장유여성합창단과 메세나 결연을 맺고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경원 벤텍은 조선소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선박기자재업체로 직원은 약 200여명이고, 연 매출액은 1천5백억 가량됩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지만 선박기자재업체이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성이고 또 노동 강도가 상당히 심한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에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께서 "중공업이다 보니 여러 면에서 경직되는 면이 있는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유연한 분위기를 찾아보자" 고 하시면서 사내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소통을 통한 효율한 일터 만들기' 강연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경영의 일환으로 제가 과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에 메세나 지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 메세나는 이제 시작이다" 고 하셨듯이 앞으로 더 활발한 메세나 활동이 진행될 것 같은 예감과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클래식 공연장에서

편하게 즐기는 법

여자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클래식 공연장을 찾은 남자친구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가득하다. 방학이라 부모의 손에 끌려온 한 아이는 온몸을 비틀다 잠을 청하기 일쑤다. 공연장에서 쉽게 보는 풍경. 과연 어떻게 하면 클래식공연을 즐길 수 있을까?

박종순(경남도민일보 문화부 기자) / yard@idomin.com



클래식 음악은 관객을 차별하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공연은 고상한 사람들이나 듣는 음악 아닌가?'

클래식 공연을 덮어놓고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결론은 아니다. 클래식 음악은 관객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유는 클래식 음악의 개념을 보면 알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을 사전에 찾아보면 '옛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평가받는 예술작품' 이라고 적혀있다. 흔히 '클래식 음악' 하면 '고전파시대 귀족들이 들었던 음악'이라는 점 때문에 '고상한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하지만, 후대까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음악이라는 '정의'를 마음에 담아둔다면 클래식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훌륭한 미술작품', '여행지의 세계문화유산'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몰라서 어색할 순 있어도 특정한 계층이 듣는 것은 아니다.

또한, 클래식 음악 하면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유명음악인들을 먼저 떠올려 이들 시대만의 음악이라 생각하나 시대 역시 한정되는 건 아니다. 모차르트와 하이든은 고전파시대의 작곡가지만, 베토벤은 음악의 역사를 바꾼 인물로 고전파시대 음악을 완성하고 낭만파 음악시대를 연 인물이다. 통영이 낳은 음악가 윤이상의 음악은 현대음악이라 하는데 이 또한 클래식음악이다. 클래식음악은 고전파시대부터 현대음악까지 시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자.



알아두면 좋은 클래식 공연장에서의 규칙

클래식 공연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른 공연에선 볼 수 없는 어색한 문화 때문이다. 클래식 공연의 규칙만 몇 가지 알면 쉽게 극복되는 부분이다.

흔히 공연장을 찾으면,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예종이 울린 후 본종이 울리며 시작한다. 1부와 2부로 나눠 연주되며 15분 정도 휴식시간을 주는 게 기본이다. 공연 도중 들어갈 순 있긴 하나 이럴 때, 한 작품이 끝난 후 입장이 가능하다.

클래식 공연장을 찾을 때 관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박수 시점'. 언제 쳐야하는지부터 왜 이때만 쳐야 하는지 불만은 많지만 꾹 참는 관객들이 많은데.

물론, 규칙이 '감동'을 전하는 그 마음마저 뺏어선 안 되지 않은가 반문하겠지만 사실, 작품 공연 중에 손뼉을 치는 것은 이제 발동이 붙어 공부 좀 하려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것과 같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여다보면, 오페라 서곡에 이어 협주자와 함께하는 협주곡이 오르며 맨 마지막에 교향곡이 연주된다. 교향곡은 1악장에서 4악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악장 간의 관계는 소설에서의 기승전결과 유사하다. 1악장은 빠르고 생동감이 넘치는 반면, 2악장은 느리고 아름다운 편이다. 3악장은 춤추는 기분이고 4악장은 밝고 힘차며 1악장을 반복하는 듯하다.

이처럼 기승전결이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중간에 손뼉을 치면 자칫 연주자의 감정 흐름을 흩뜨릴 위험이 크다. 악장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 손뼉을 치는 것은, 결국 관객이 더 좋은 연주를 보기 위해서다. 따라서 연주 시작 전 미리 팸플릿을 보고 이 작품이 몇 악장까지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공연을 감상하기가 훨씬 편하다.



즐기러 왔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

최소한의 공연예절은 지키되 클래식 음악 또한 '즐기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형식에 대한 강박관념이 본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작품의 제목이다.

대중가요 제목처럼 여겨, 길게 늘어선 외국어와 숫자를 기억하려 한다면 공연 한번 갔다 질리고 만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곡 위대한 예술가를 추모하여 a단조 Op.50〉를 예로 들어보자. 수학공식도 아니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조목조목 뜯어보면 제목의 맨 앞에 나오는 건 악기 배열이요, 그다음은 제목, Op은 작품이라는 뜻의 라틴어일 뿐이다.

길게 늘어선 작품의 제목은, 클래식음악역사가 오래된 만큼 작곡가의 작품을 분류하며 번호를 매기며 생긴 규칙일 뿐이며 큰 의미는 없다.

현악사중주단 조윤범과 콰르텟엑스는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6번 3악장의 분위기가 톡톡 쏘는 꿀벌과 같아 '꿀벌'이란 명칭을 붙여 연주한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친숙한 접근방법이지 않는가.

공연장에서 클래식 음악을 접할 땐 미리 나눠주는 팸플릿을 미리 챙겨 누가 작곡한 것이며 어떤 내용인지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그다음 곡명, 연주자를 차츰 기억해 간다면 클래식음악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클래식 공연장을 찾을 땐 일단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작은 규칙은 지키되, 음악의 형식을 두고 미리 겁먹지 말아야 한다. 대중가요와 마찬가지다. 대중가요도 선율과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 그 노래와 가수에 빠져들지 않는가. 클래식 음악 역시, 작품의 내용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먼저다.



"어려운 곳, 음악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갑시다!"

– 화성 G&I㈜와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2010년 연말, 마산 영신원에 살고 있는 꼬마들은 손님들을 맞았다. 손님들은 다름 아닌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과 화성 G&I의 사원들이었다.

꼬마들은 언니나 형들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과 첼로 등을 만져보고 싶은 듯 유심히 쳐다보았다. 20여명의 언니와 형들이 작은 무대에 자리를 잡고 꼬마들의 귀에도 익은 모차르트의 터어키 행진곡이나 슈만의 꿈, 요즘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자 꼬마들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환성을 질렀다.

영신원 꼬마들의 연말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 준 이 행사는 화성 G&I와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에서 준비했다. 화성 G&I는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과 결연을 맺고 지원해오고 있는데,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에서 화성 G&I에게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 사원음악회를 제안하자 화성 G&I의 김원철 대표가 "우리 회사보다 음악이 더 필요한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 날 화성 G&I는 영신원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과 선물도 마련했다.

화성 G&I와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이 어려운 곳, 음악을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익재활원인 풀잎마을에서도 이러한 공연을 가졌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도 개최한 바가 있다.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의 김호준 단장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공연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이 단원인 청소년들에게도 의미가 있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일수록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공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의식주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다. 문화예술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존감과 자신감 등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화성 G&I의 김원철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은 화성 G&I의 깊은 배려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며 향후에도 어려운 곳을 함께 찾아가겠지만, 화성 G&I 사내 공연도 꼭 진행시킬 계획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화성 G&I와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기에.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의회 박영빈 신임 회장 선임

경남메세나협의회는 1월 25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경남은행 박영빈 은행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박영빈 회장은 "경남지역에 메세나 열기가 달아오른 중요한 시점에 회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종전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내 기업들의 문화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문화예술 지원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은행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경남메세나협의회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제 2차 경남메세나포럼

경남메세나협의회는 2011년 1월 14일 '제2차 경남메세나포럼' 을 개최하였다. 기업 문화경영 사례공유와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경남은행의 메세나 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살아숨쉬는 메세나 활동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통한 아이디어 공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박고은 트럼펫 독주회

2009년 경남메세나 경남은행 문화영재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고은양이 2010년 12월 28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트럼펫 독주회를 개최했다. 진주경해여자중학교 1학년으로 대한민국 음악영재의 산실인 '금호영재' 에 선발되기도 한 박고은양은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 작곡가인 토렐리와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전 악장을 연주했다. 경남은행의 후원으로 독주회를 갖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박고은양은 2011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흔치않은 여성 트럼페터로서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결연팀 소개

법무법인금강 [김원태, 박채규]

대한전통예술보존회 경남지회 [지회장 손양희]

법무법인 금강은 지역민에 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을 목표로 2001년 김해에 설립되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및 기업회생, 기업파산 등으로 업무분야를 세분화하여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 및 경제현상에 가장 적절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업메세나 실천을 통해 지역민에 한발 더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의 계승발전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1994년 창단이후 현재까지, 유럽, 남미, 동남아 등 해외 순회공연을 비롯하여 국내외 약 1,000여회 이상의 공연활동을 해 오고 있는 대한전통예술보존회 경남지회와 결연하였다. 1996년부터 '창원 전국국악경연대회' 를 매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손양희 지회장은 법무법인 금강과의 결연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피케이밸브(주) [대표이사 박헌근]

창원큰들 [대표 전민규]

국내 최초의 밸브생산(PK밸브 전신인 부산금포공업사 1946년 설립)으로 국내 밸브산업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60년 전통의 밸브생산 전문기업인 피케이밸브는, 창원공업기지(창원공단) 제1호 입주(가동)업체로 공단과 함께 성장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내 약 1천여 개의 동종업체 중 밸브생산 모든 과정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세계각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PK라는 독자 브랜드로 참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입지를 다짐과 동시에, 민족문화를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재창조하고 건강한 지역문화건설을 지향하며 마당극, 풍물놀이 등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연구 및 보급활동, 노래공연 등의 활동을 하는 종합문화예술단체인 창원큰들과의 결연을 통해 든든한 문화예술 후원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

1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

-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여유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 봉사 등을 지원,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 공연 및 직원 예술교육, 공연 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 지원
- 2008년 29개 팀, 2009년 45개 팀, 2010년 50개 팀 결연

○ 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

– 중소기업의 예술단체 지원금에 경상남도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 공공예산 2배의 효과!
– 2010년 43개 팀에 경상남도 지원금 4억원 지원

2 회원사협력사업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 찾아가는 공연 : 기업 행사 시 예술단체가 방문하여 공연 제공. 2010년 21회 실시
- 예술동아리 지원 : 사내 예술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 지원. 2010년 4개 동아리 지원
- 미술작품 대여 : 도내 작가들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사내에 전시. 2010년 4개사 실시
- 예술기행 : 회원사 직원 및 가족에게 지역 문화예술 체험 제공. 2010년 5월 통영예술기행, 9월 하동예술기행 총 2회 실시
-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 및 담당 임원에게 우수 공연관람 기회 제공.
- 지정기탁 : 기업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2010년 4개사 14건 지정기부금 처리

3 문화 나눔사업

-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소외계층에 찾아가 공연 제공. 2010년 '난리굿패 어처구니' 도내 노인복지시설 방문 공연
- 즐거운 나눔 티켓 :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연 티켓 제공. 경남지역아동센터협의회 어린이 150명에게 뮤지컬 '알라딘' 티켓 제공

4 연구 및 홍보사업

- '경남메세나' 발간 : 메세나 사업소개, 회원사 메세나 활동, 경남 예술소개 등을 담아 연 3회 발간하여 배부. 2010년 10월 8호 발간
- 문화경영세미나 및 경남메세나포럼 개최 : 도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 활용 전략 제시. 2010년 7월, 11월 각각 개최
- 문화경영 도서 보급 : 문화경영 관련 도서 회원사에 배부. 2010년 '오리진이 되라' 배부
- 예술경영 아카데미, 결연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샵 : 예술단체 실무자 대상으로 예술 경영 교육 실시. 2010년 8월, 11월 각각 개최

5 경남메세나대회

- 2010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 2010년 12월 2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
- '2010 경남메세나상' 시행 :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 [대상 : 경남스틸㈜, 공로상 : 동서화랑 송인식 관장, 경남메세나인상 : 도난실 전 도의원, Arts&business상 : ㈜포스텍–진해미술협회, 창원서울이비인후과–대안공간마루, STX문화예술영재상 : 이우일]

6 신규회원모집

- 도내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현재 170개사

문화파발마

오광대

"탈춤 추는 공룡세상"

고성오광대 보존회는 공룡 1번지 고성군 공룡박물관 야외놀이마당에서 매주 일요일 자연사 문화와 무형 문화의 우수성을 동시에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탈춤 추는 공룡세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을 대표하는 탈춤 고성오광대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 관광 자원화의 우수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장 소 : 고성공룡박물관 야외놀이마당
- 일 시 : 2011년 4월 24일(일) – 9월 매주 일요일 13시 30분
- 문 의 : 고성오광대 보존회 055)674-2582

전 시

"한·중·일 작가들, 레지던시로 만나다"

대안공간 마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중국, 일본 작가 15명을 초청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세 나라 작가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소통하며 창조해낸 결과물을 1월 26일부터 한 달여간 전시할 예정이다. 합동 전시회 이후 4월부터 연말까지는 레지던시에 참가한 작가들의 개인전을 보름씩 개최하게 된다.

- 장 소 : 대안공간 마루(경남도청 후문 맞은편)
-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 2월 28일(월)까지
- 문 의 : 대안공간 마루 055)283-7484

독자의 생각

경남메세나 9호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세분께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11. 2. 28 까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gnmecenat.or.kr) [정보가 있는 공간] ▸ [메세나지] ▸ [소감문 남기기] **이메일**(gnmecenat@gnmecenat.or.kr)

❶ 이번호를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소감을 적어주세요.
❷ 이번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칼럼 3개를 적어주세요.
❸ 다음호에 추천하고 싶은 칼럼의 주제를 적어주세요.

지 난 호 소 감

01. 경남은행 이시환

❶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지 하동예술기행 칼럼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꼭 메세나 예술기행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❷ 1.예술과 삶–전혁림 2.인산가곡제 3.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❸ 메세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메세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해설한 칼럼이 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이나 다른 지역 사례들도 궁금합니다.

02. ㈜중앙금속 박정연

❶ 기업과 예술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회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오광대나 통영옻칠미술관 같은 우리 지역 예술 이야기가 다양하게 실려 있어 반갑고 흥미로웠습니다.
❷ 1.예술과 삶 2.하동예술기행 3.아름다운 동행
❸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프리뷰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니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고 싶어요.

03. 경남예총 김영애

❶ 문화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업과 경영을 이해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아름다운 동행의 현장은 늘 감동입니다. 도지사님의 인터뷰에서처럼 메세나운동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전국에 확산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❷ 1.인터뷰 2.예술과 삶 3.아티스트 소개
❸ 기업과 예술단체 CEO의 대담 혹은 담당실무자들의 대담, 동반인터뷰

04. ㈜현대단조 박진주

❶ "기업은 예술에게 예술은 지역민에게" 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메세나 결연을 기반으로한 기업–예술–지역민 간의 순환적 고리로서 메세나 역할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❷ 1.하동예술기행 2.아름다운 동행 3.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❸ 보다 부담없고 쉽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연 참가자들의 생생한 방명록이나 구독자들의 한줄 서평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 STX조선해양㈜ 강현웅

❶ 아직은 문화예술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 기존의 장황한 정보 서술에서 벗어나 인터뷰나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등 점점 소식지가 독자 중심적으로 쉽게 읽혀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❷ 1.아름다운 동행 2.예술과 여행 3.스토리가 있는 문화
❸ 연말인 만큼 지역문화계에도, 기업에도 많은 문화예술 관련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거리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한 흥미있는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KOSDAQ 상장회사

문화관광부 선정「메세나 기업」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경남스틸이 함께합니다.

가치 있는 기업, 정보화로 무장된 기업, 존경받는 기업,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
무엇보다 사회와 이웃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기업,
경남스틸의 다짐입니다.

Gns 경남스틸
www.gsteel.co.kr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Cover story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전수관은 가곡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2006년 9월에 건립되어 우리 문화유산인 '가곡'의 원형보전과 전승에 힘쓰고 있다. 국악연주단 '정음(正音)'을 창단하여 가곡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고려철강과 결연하여 더욱 활발한 가곡 전수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TEL. 055-285-5611 / FAX. 055-285-5610 / www.gnmecenat.or.kr